

#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 사례 연구\*

- 강석범 감독의 <정승필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

윤일수\*\*

|| 차례 ||

- I. 머리말
- II. 참만남이 부재한 현대사회 풍자
- III.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존중심 배양
- IV. 진단 및 평가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을 텍스트로 하여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를 실시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영화치료는 두 방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영화 자체에 대한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경험에 대한 접근이다. 먼저,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은 주인공 정승필이 우연히 화장실에 갇히게 된 사소한 사건이 보험사기, 공금횡령, 치정에 의한 살해 등으로 커져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따라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에 적합했다. 다음으로 영화와 유사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억눌렸던 감정을 치유할 수 있었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기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후검사 결과, 영화감상에 비해 영화치료가 유언비어[헛소문]을 믿는 정도나 떠도는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에서 사생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소문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참가자는 영화치료를 통해 그 후유증을 극복했으며, 다른 참가자들 또한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남의 말을 할 때, 주의하는 태도가 길러졌음을 확인함으로써 영화치료가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정승필 실종사건>, 사생활 보호, 유언비어, 존중심, 욕구, 영화치료, 인문치료

## I.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과 ‘태진아 부자 협박사건’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존중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은 2009년 11월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후, 경찰이 2010년 10월 직접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확인해 발표함으로써 학력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 인하여 타블로(본명 이선웅)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떨린다고 했다.<sup>1)</sup> 또한 2010년 초부터 11월 7일까지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최희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받은 고통과 타격은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sup>2)</sup>

1) 『동아일보』, 2010.12.22. <http://news.donga.com/3/all/20101222/33434785/1>

2) 최희진이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은 당초 징역 5년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최희진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러 차례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국일보』, 2010.12.20.

이후 최희진의 항소로 이루어진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5부(부장판사 양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유포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이다. 타블로에 의하면 자신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하지도 않은 말들이 과장된 자막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다.<sup>3)</sup> 또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 중 일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수는 이번 사건을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sup>4)</sup> 즉 다른 사람의 이픔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0.8%가 악플을 단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악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98.9%).’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악플을 단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악플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65.8%).’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33.2%).’라는 의견보다 약 2배나 많았다고 한다. 반면, 악플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49.7%).’라는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다

주)는 2011년 5월 13일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엔』, 2011.5.14.

3) MBC ‘무릎팍도사’에서 “글을 잘 써서 스탠퍼드대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던 것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없이 글 하나만으로 입학’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최우수로 졸업했다.’고 한 말이 ‘수석졸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10.12.22. <http://news.donga.com/3/all/20101222/33434785/1>

4)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에 관련된 누리꾼들은 ‘타블로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매일 카페에 로그인해 타블로에 대한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찾는 데서 재미와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높은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끔찍한 사건에 대해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소.’라고 한 것에서도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고작 인터넷 게임 정도로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10.12.22. <http://news.donga.com/3/all/20101222/33434785/1>

(48.7%).’라는 의견보다 근사한 차이나마 더 많았다는 것이다.<sup>5)</sup>

사람들은 낯선 대상을 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도식들을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Lord, Ross와 Lepper(1979)는 우리가 가진 신념이 제시된 증거를 왜곡시키는 실험을 통해, 똑같은 대상도 어떠한 선입견을 가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의 신념은 일단 이론을 잘 검토하여 나름의 논리를 갖추게 되면 그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를 많이 접해도 신념의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악플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많은 사람들은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집된 자료의 편파성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표본의 크기이다. 왜냐하면 큰 표본일수록 모집단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sup>7)</sup>

여기서 사생활 보호[은사권(隱私權)]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지칭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를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려는 요구라고 보아 ‘개별정보공개 자기결정권’으로 발전되었다.<sup>8)</sup>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sup>9)</sup>은 주인공 정승필이 우연찮게 화장실에 갇히게 되는 사소한 사건이 점차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커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이는 이기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지어낸 유언비어 때문에 보험사

5) 『노컷뉴스』, 2010.11.1.

6)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7, 161-162면.

7) 위의 책, 165면.

8) 유일상,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취재원 보호, 알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2003.10, 11면.

9) 강석범 감독,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화이트리 시네마, 2009.

기극, 공금 횡령, 치정에 의한 살해 등으로 진행된다. 이 영화에서 시종일관 진실만을 말하는 유미선과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편의점 점원·백부장·오정구 기자·김탁호 형사·박형사 등을 대비시킴으로써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정승필 실종사건>은 코믹물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라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텍스트로 삼았다. 치료를 위해 영화를 선택할 때, 특정한 삶의 조건에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영화가 적합하기 때문이다.<sup>10)</sup>

2010년대에 205분간 단회기로 실시된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총 3명으로 그중 남성 1명, 여성 2명이다. 가명으로 명기된 참가자별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질문	응답
전지현	성별 및 나이	여, 20세
	가족사항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집안 분위기	화목, 즐거움
김태희	성별 및 나이	여, 19세
	가족사항	아버지, 언니, 남동생
	집안 분위기	화목, 가끔 싸우나 잘 지냄
장동건	성별 및 나이	남, 20세
	가족사항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집안 분위기	가족끼리 잘 어울림, 부모님과 자주 술을 마심

본 프로그램은 사전작업(상담신청서·비밀보장 서약서·사전질문지 작

10)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심영섭·김준형·김은하 역,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06. 37면.)

성), 영화 감상, 영화설문지 작성 및 토론, 마무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을 텍스트로 삼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영화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할 사람을 공개 모집했다. 둘째, 위명업은 사전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가를 충분히 일깨워줄 수 있었다. 셋째,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전편[97분]을 감상하고, 영화설문지를 작성한 뒤 토론을 하였다. 전편을 다 감상함으로써 함께 영화를 보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넷째, 영화 감상을 마친 후, 각자 영화 질문지를 작성했다. 작성한 질문지를 토대로 토론을 했다. 영화에 관한 토론에 이어 사전에 작성한 소문과 관련된 집단원들의 경험을 덧붙여 토론했다. 또한 영화치료가 가지는 매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상담자가 영화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화미학적인 측면을 분석해줌으로써 영화치료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다섯째, 4개월이 지나고 사후검사를 했다. 사후설문지는 전체 6문항 중 4문항을 사전 설문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영화치료 전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섯째, 영화치료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언비어[헛소문]이 주는 피해 정도, 떠도는 소문을 믿는 정도, 떠도는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 등을 영화감상과 비교해 보았다.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사생활 보호에 관한 영화치료 또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본고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글라제의 기본 욕구로 분류한 뒤, 융의 정신분석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스크린은 하나의 거울로 관객의 욕망과 그림자가 투사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객은 스크린 안의 주인공을 자신의 대리자처럼 느끼면서 강력한 공감 혹은 자기애적 전이를 일으킴으로써(1) 영화치료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렸다. 영화치료[예술치료]는 인문치료의 한 분과로서 인문치료가 지향하는 바와 궤를 같이 한다. 즉 인문치료란 인문학적 정신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정서적·신체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론적·실천적 활동이다.<sup>12)</sup> 여기서 ‘인문(人文)’이란 ‘사람의 무늬’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무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람의 결(人文)’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본고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 참가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물이다. 따라서 집단의 크기가 적은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사례연구로 앞으로 이루어질 다른 집단과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출발점에 있는 것이다. 영화치료의 대상 또한 일반인을 비롯하여 은사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집단 및 가해자집단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 출발점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 II. 참만남이 부재한 현대사회 풍자

강석범 감독의 <정승필 실종사건>은 밤의 빌딩 숲을 배경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usb를 빼내는 정승필, 목욕하는 여자의 속옷을 훔치는 이삼봉, 비오는 날 할인권으로 돼지 발정제를 구입하는 남자의 모습을 연

11) 유인철, 『영화치료와 집단 상담을 통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불안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7. 10-11면.

12) 강원대학교 HK인문치료사업단, 『인문치료』, 네오뮤즈, 2008.18면.

13) 김기봉, 『인문치료의 역사-‘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역사의 무거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치료학의 현재와 미래: 이론, 방법, 실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인문치료사업단 2010인문치료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45면.

이어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승필은 요가 선생과 메신저를 주고 받았고, 이삼봉은 여자 속옷을 훔쳐 입는 버릇이 있으며, 굴착기 장비업체 사장은 고향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먹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피상적인 만남만 있을 뿐이고, 진정한 만남을 할 줄 모르는 오늘날의 세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레노에 의하면 만남이란, 서로 진정으로 순수하게 조우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감 차원을 넘어서 진실로 서로 역할을 교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것이다.<sup>14)</sup> 즉 내가 바로 상대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계의 신화라 일컬어지는 자산관리사 정승필이 500억 대의 계약을 앞두고 사라지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근거없는 소문은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주목받고 싶어서 사건을 허위로 과장하고 날조한다. 그럴듯한 증거물까지 제시한 점원의 진술은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솔직담백한 유미선과 김삼봉의 진술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설을 부정하는 정보가 아닌 긍정해주는 정보를 찾고, 그러한 증거가 누적되면 비록 정보의 새로운 가치가 전혀 없더라도 더 많은 지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여기므로 그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5)</sup>

마치 요가 강사가 정승필에게 보낸 안부 메일이 성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오인되고, 유미선이 후배를 혼내는 장면이 정사를 벌이는 행위로 오인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 작품은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로저스에 의하면, 만남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순수성, 가식없는 솔직함, 공감능력, 적극적 관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

14)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231면.

15) 한규석, 앞의 책, 186면.

각(percep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sup>16)</sup> 그런데 <정승필 실종사건>에서 모든 정황이나 증거물들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비롯하여 로저스가 말하는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다운 만남을 실천하는 사람은 유미선뿐이다. 유미선은 실종된 정승필이 온갖 유언비어에 휩싸여 곤경에 빠졌을 때도 그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생명 보험금을 노려 청부살인을 했다거나 내연의 남자로 인한 치정 문제로 정승필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순간조차 흔들림없이 정승필의 행적을 추적해 나간다. 그러한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정승필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

백부장과 최생기는 그동안 지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정승필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던 인물로, 정승필이 실종되자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를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편의점 점원이 영화 <친구><sup>17)</sup>를 패러디하여 정승필 실종사건을 진술한 것은 영화 <친구>에서 준석(유오성 분)과 동수(장동건 분)의 관계처럼 정승필이 상사 백부장과 친구 최생기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에 대한 복선이다. 두 사람은 지점장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중에 정승필의 프로젝트를 가로챈으로써 그들이 퍼뜨린 소문은 자신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임이 드러난다. 응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관해 표명한 판단 속에서 자신의 결함을 노출시킨다고 한다. 즉 그저 자기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직 용인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즉 다른

16) 최현진, 앞의 책, 221면.

17) 광경택 감독, 영화 <친구>, 시네라인(주)네트, 2001.

18) Grundwerk C. G. jung, Grundfragen zur Praxis, Walter-Verlag, 1984.(한국융연 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Grundwerk C. G. jung 융 기본저작집1, 서울: 숲, 2007, 191-192면.)

사람과의 갈등은 자신의 인격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의 투사이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결과이다.<sup>19)</sup>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과 최생기는 정승필을 통해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난했던 것이다.

오정구 기자 역시 NBC의 봉기자가 특별단속팀을 따라다니며 취재한 것이 시청률 대박을 터뜨렸으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것이 탄로나 아프카니스탄으로 발령받았다고 고소해 한다. 그런데 바로 본인이 정승필 실종사건을 취재하여 시청률 대박을 터뜨리지만 허위기사로 판명되어 아프카니스칸으로 발령받음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었음이 드러난다.<sup>20)</sup> 이처럼 백부장이나 오정구 기자처럼 자신이 비의식에 품고 있는 공격적 계획과 충동을 남의 것이라고 떠넘겨 버리는 정신기제를 투사(投射, projection)라고 한다. 투사는 가장 미숙하고 병적인 정신기제로 망상이나 환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sup>21)</sup>

김탁호는 소명의식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무능한 형사다. 그가 정승필 실종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김탁호 형사가 수사하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술주정꾼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허름한 건물에서 정승필의 명함을 받았다고

19) Calvin S. Hall, Vernon J. Nordby,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arrangement with Dutton, 1973.(김형섭,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2006, 114면.)

20) 언론의 범죄보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추정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보도, 혹은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을 마치 '진범'인 것처럼 그리고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무죄추정의 헌법적 정신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 일명 포르말린 사건, 우지과동 사건, 불량만두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 보도함으로써, 나아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 보도함으로써 범죄와 관련됐다고 발표된 특정 기업과 특정 인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경제적·물리적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하며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10, 78면.

21)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도서출판 이유, 2006. 176면.

했을 때, 그가 찾아다니는 것은 건물에 갇힌 정승필이 아니라 쓰레기다. 청소차가 건물 앞의 쓰레기를 치워버리자 쓰레기가 없어진 사실에 집착하며 쓰레기를 찾아다닌다. 이것은 수사에 임하는 김탁호 형사의 마음가짐이나 정승필 실종사건에 대한 편의점 점원과 그 밖의 사람들의 진술이 진실을 외면한 표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양상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먼저, 정승필을 예로 들자면 유미선이 원하는 것은 정승필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 한 마디를 듣는 것인데, 정승필은 이벤트회사에 생일파티이벤트를 의뢰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벤트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성의한 이벤트를 한 후, 정말 ‘설프라이즈(Surprise)’했다고 말해 달라.”는 요청을 남기는 것과 같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껌데기에 불과하다.

또한 박형사는 우울하고 억울하게 생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늘 인상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준 애인이 도망갔기 때문이다. 애인에게 돈을 떼였다는 것은 형사로서나 남자로서나 모두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그녀로 하여금 죄과를 치르게 하지 못하고 숨기려 했던 것이다. 즉 사건을 가시화시켜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묻어두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커져 갔던 것이다. 그 결과 배신한 애인에 대한 혐오가 여성 전체로 향하게 되어 ‘뺨하면 여자를 범인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래서 정승필이 실종된 원인이 유미선에게 있다고 밀어붙이기 수사를 펼침으로써 사건을 미궁 속으로 몰고 갔다. 박형사의 이러한 반응은 애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무석에 의하면, 부정(denial)은 발달단계 중 최초이면서 가장 원초적인 방어기제 중의 하나이다.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비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sup>22)</sup>

이상에서 살펴본 인물별 유언비어와 관련된 행위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물	행위	결과
편의점 점원	메스컴을 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승필 실종에 대해 범인의 똥타 주를 제시하며 거짓으로 진술	정승필 실종을 조직 폭력배가 개입된 살인사건으로 메스컴에 보도, 사건이 왜곡 과장
백부장	정승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정승필을 공금횡령 도주범으로 진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것으로 뉴스에 보도됨으로써, 정승필·백부장·최생기 실직
오정구 기자	시청률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추측 보도	화장실에 갇힌 단순한 사건을 공금횡령 도주,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살인사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 마약밀반입 개입설 등으로 왜곡 과장
김탁호 형사	무능한 형사로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짜맞추기식 수사	정승필 실종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실직하게 만들고,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자신도 교통계로 이직
박형사	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폐인 후, 여성을 무조건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경향	유미선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감유미선과 최생기, 오모 후배의 관계를 의심하여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몰고 감

이처럼 헛소문이나 유언비어가 마치 진실인양 유포되고, 피상적이거나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대한 풍자는 생일축하 이벤트 이외에도 할인권·가명·향수·스티커 사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굴착기업체 사장은 돼지발정제를 구입할 때나 웨이터 주무치에게 비밀보장의 댓가로 할인권을 지불한다. 이처럼 부정한 일의 댓가로 지불하는 것이 할인권이므로, 할인권 또한 부정적으로 비친다. 즉 할인권은 마치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가격을 다 받는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굴착기 기사 김상봉은 ‘이병헌’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굴착

기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작업 기록과 실제로 작업한 사람은 다르다. 이로 인해 김탁호 형사는 수사에 많은 혼선을 겪는데, 이러한 장치 또한 오늘날 소문과 진실이 다른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다. 유미선 또한 향수 때문에 박 형사를 정승필과 동일시하며, 유미선의 후배 역시 향수를 미선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향수는 가짜 체취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체취보다 더 진짜같이 받아들여진다. 스티커 사진 또한 정승필과 유미선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온갖 장식으로 덧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에서 근거없는 소문은 술주정꾼의 주사와 같다고 보았다. 술주정꾼은 화장실에 갇힌 정승필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계속 주위를 맴돌다가 마지막에 정승필의 명함을 전달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열쇠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주정꾼이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덧보태어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술주정꾼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승필이 갇혀있던 화장실은 처녀귀신과 저승사자가 살고, 생쥐들도 사는 철거예정 건물이다. 정승필은 화장실 안에서 안경을 벗고 생활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색안경을 벗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화장실 장면에서 두 편의 영화를 오마주(hommage)<sup>23)</sup>하고 있는데, 그 중 한 편은 프랭크 다라본 감독의 <쇼생크 탈출>이다. 정승필은 남자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 여자화장실로 기어 나온다. 정승필이 여자화장실에 도착하는 순간 네모모양의 환풍구는 원모양의 하수구로 변하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천으로 기어 나온 정승필이 상의를 벗으며 두 팔을 벌려

23) 오마주(hommage)란 불어에서 온 말로 ‘경의의 표시’ 또는 ‘경의의 표시로 바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예술작품의 경우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부러 모방을 한다든가 또 다른 형태의 인용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하늘을 향해 쳐다보는 장면으로 바뀐다. <쇼생크 탈출>에서 탈옥한 앤디가 그간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 채 일만 하던 성공한 은행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바닷가에서 레드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정승필 실종사건>에서 정승필이 남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로 탈출하는 것은 남성의 성취지향적인 삶에서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sup>24)</sup>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구조된 이후, 정승필의 삶은 그간의 자산관리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두 쌍둥이를 키우며 유태선을 뒷바라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쇼생크 탈출>이 성공한 은행가의 삶⇒쇼생크 교도소⇒멕시코 지화타네조의 삶으로 바뀌듯이, <정승필 실종사건>은 성공한 자산관리사의 삶⇒화장실 감금⇒내조하는 남편의 삶으로 바뀐다.

또 다른 한 편은 애니메이션 <라따뚜이><sup>25)</sup>이다. 요리평론가의 악평으로 폐업의 위기까지 갔던 레스토랑이 실력이 뛰어난 생쥐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명성을 되찾게 되고, 까다로운 그 요리평론가 역시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과 같은 라따뚜이<sup>26)</sup>를 먹고, 과거의 행복을 재경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승필 실종사건>에서 정승필은 환풍구속에서 초코볼을 발견하지만,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배탈이 날까봐 그것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불신이 만연한 오늘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도 정승필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유태선은 <라따뚜이>에 등장하는 생쥐에 대비된다.<sup>27)</sup>

24) 남성의 성취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속성을 가진다.

25) 브래드 버드, <라따뚜이(Ratatouille)>, 픽사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디즈니픽처스, 2007.

26) 볶음 음식이라는 뜻의 '라따뚜이'는 가지, 토마토, 피망, 양파, 호박 등 각종 채소에 허브, 마늘을 추가해서 올리브유로 센 불에서 볶아낸 요리이며, 여기에 와인에 졸인 닭가슴살인 꼬꼬빵을 토핑 재료로 사용,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육질을 느낄 수 있다.

27) 정승필이 환풍기를 통해 출구를 찾아다닐 때, 생쥐떼들이 몰려가는 장면은 <라따뚜

화장실에 갇힌 정승필 또한 잉여현실(surplus reality)<sup>28)</sup>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 유미선의 사랑을 얻는다. 이러한 정승필의 감정의 변화는 그가 늘 지니고 있던 어머니의 사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미선의 사진으로 바뀌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즉 아무리 불신이 만연한 사회라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승필 실종사건>은 사소한 사건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백부장·최생기·김탁호 형사·오정구 기자·박형사 등을 통해 부풀려지는 사건 전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등장인물들의 투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이 지적했듯이 자신의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하지 못한 자신의 결점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소하지 않으므로, 인간관계는 개선되고 타인이나 자기 자신과 좀 더 조화로워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sup>29)</sup>

### Ⅲ.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존중심 배양

영화치료는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 이외에 등장인물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비르기트 볼츠에 의하면 어떤 인물에 대해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내면세계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때 특정 인물이나

---

이>에서 생쥐떼들이 물러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28) 잉여현실은 광의로는 한 개인의 정신세계 내에서 총체적 현실 가운데 일상 현실화된 부분을 빼 나머지 부분의 현실을 의미한다. 협의로는 일상현실 속에 충분히 표현되거나 경험되어지지 않은 하위현실과 달리 논리적으로 규격화될 수 없는 정신 내적 생활 영역을 가리킨다. 최현진, 앞의 책, 321면.

29) Calvin S. Hall, op.cit, p.85.

행동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하게 반응할수록 영혼의 반항은 더 명료하고 확실해진다고 한다.<sup>30)</sup>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를 텍스트로 삼아 사생활 보호를 자각시키기기에 적합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그중에서 주요한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등장인물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인물과 그 이유	싫은 인물	안 싫은 인물
전지현	장면: 편의점 점원이 거짓말하고도 의기양양해 하는 것 이유: 거짓진술을 하고도 당당한 것 마음에 걸림	인물: 미선 이유: 굉장히 답답했 을 것 같음	인물: 편의점 점원 이유: 어쩔 수 없 이 부모님께 거짓 말함	인물: 요가 선생 이유: 외모도 안 닮음. 오해를 살만한 행동 안함
김태희	장면1: 정승필이 구출돼서 유미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장면2: 쥐들이 정승필 위를 지나가는 것	인물: 정승필 이유: 사랑한다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나와 닮음	인물: 김택호 형사 이유: 노력없이 무언가 얻으려 함	인물: 백부장 이유: 딱 정해 놓고 자기 이익 때문에 무언가를 함
장동건	장면: 정승필이 자기 약혼녀에게 사랑한다고 느낄 때 이유: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상실감을 느낄 때 더욱더 간절해짐	인물: 백부장 이유: 나라도 비슷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됨	인물: 오정구 기자 이유: 사고치고 도망감	인물: 편의점 점원 이유: 거짓말을 잘 안 함

참가자들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뽑은 것은 개개인마다 매우 상이했는데 그것은 참가자 개인의 성격과 상관이 있었다. 윌리엄 글라쎄에 의하면,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유전적인 욕구 강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1)</sup> 글라쎄가 제시한 다섯

30) Birgit Wolz, op. cit, p.166.

31) William Glasser,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Harper Collins, 1988.(김인자·우애령 역, 『선택이론, 행복의 심리학』, 한국심리상담

가지 기본욕구는 생존의 욕구(survival need), 소속의 욕구(belonging need), 성취의 욕구(power need), 자유의 욕구(freedom need), 즐거움의 욕구(pleasure need) 등이다. 생존의 욕구는 신체를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 하도록 하는 소화·호흡·혈압조절 등과 관련된 것이다. 소속의 욕구는 사랑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성취의 욕구는 자아 존재감, 목표 달성, 성공과 관련된 것으로, 경쟁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의 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즐거움의 욕구는 놀이나 학습 그리고 인간관계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호기심과 변화를 즐기며, 진보 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독창성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2)</sup>

먼저, 전지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편의점 점원이 거짓말을 하고 난 뒤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꼽았는데,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고도 당 당하다는 것이 신경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전설문지에 의하면 전지현 은 고등학교 때, 사실과 무관한 소문 때문에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벌어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뒤늦게 전지현이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관계 를 회복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관계있다. 따라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일로 인해 정승필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요가 선생을 자신과 닮지 않은 인물로 선택했으며, 자신이라면 오 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사람들간의 관계 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봤을 때, 전지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 가 강한 편이다. 글라씨가 주장했듯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

연구소, 2006. 110-111면.)

32) 양재혁·박제일, 『기본욕구검사(Basic Need Test: BNT)척도개발 예비연구』, 『인문 학논총』, 14권 2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6. 244-245면.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sup>33)</sup>

또한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에[헛소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전검사에서는 명품녀에 관한 소문, 타블로의 학력허위 논란, 정선희에 대한 악성루머 등을 들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김성민의 마약복용과 관련된 소문을 들었다. 이들은 사생활 침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진실에서 많이 왜곡되어 소문의 주인공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인물로 유미선을 선택했다. 유미선은 정승필이 실종되었을 때, 가장 걱정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형사로 부터 보험금을 노린 살해 내지 치정에 의한 살해라는 의심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답답한 처지에 처했던 인물이다. 과거에 친구로부터 오해를 샀던 자신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모레노는 관객들이 극중 주인공과 갖게 되는 동일시(identification)를 ‘미적 카타르시스(aesthetic catharsis)’라고 불렀다.<sup>34)</sup>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정서를 방출한 후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치료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감정을 담아 두게 되면 ‘뭔가 감추고 있는’ 느낌을 가져오지만 그것들을 방출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5)</sup>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신과 가장 닮은 인물로 편의점 점원을 선택한다. 토론의 초기에는 편의점 점원이 거짓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는데, 자신도 어쩔 수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편의점 점원은 TV출현이라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전지현은 부

33) 위의 책, 124-125면.

34) Zarka T. Moreno, Leif Dag Blomkvist & Thomas Rützel 공저, Psychodrama, surplus Reality and Art of Healing, Routledge, 2000. 황현영·김세준 공역, 『사이코 드라마와 잉여현실-드라마치료의 기원과 실제』, 학지사, 2005, 180면.

35) 김수동·이우경,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학지사, 2004, 110면.

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바깥에 있으면서도 기숙사라고 하거나 밥을 안 먹었으면서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의 욕구로 인한 것이다. 글라쎬에 의하면 자유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참기 어렵다고 한다.<sup>36)</sup> 즉 전지현은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종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치료를 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화제로 삼으면 듣기 싫었는데, 영화치료가 끝나고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후검사에서 그런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때 소문으로 인해 친구를 잃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을 가십거리로 삼으면,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회피했던 것이다. 회피(回避, avoidance)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의식적·비의식적 회피 둘 다 가능하다.<sup>37)</sup> 즉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또 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캘빈과 베르논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그림자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더욱 자아를 압도하는 것이며, 그 결과 개인은 타격을 받아 무력해진다고 한다.<sup>38)</sup>

김태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정승필이 구출돼서 유미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과 쥐들에게 밟히는 장면을 선택했다. 먼저, 정승필이 유미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정승필이 사랑한다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과 닮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한다. 물의를 일으킨 소문 중, 기억나는 것으로 사전검사에서는 연예기사(임신, 낙태)를 꼽았고, 사후검사에서는 장윤정과 노홍철의 결

36) William Glasser, op.cit, p.124.

37) 이무석, 앞의 책, 199면.

38) Calvin S. Hall, op.cit, p.83.

별과 관련된 소문(임신설)을 폄하였다. 그리고 이벤트를 ‘사랑해’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스티커사진을 커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태희의 ‘지금-여기(here and now)’의 화두는 ‘사랑’인데, 사후검사에서 당시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으로 뽑은 다른 하나는 쥐들이 정승필 위를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이유는 우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희는 평소에 연예 기사를 즐겨보며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즐거움의 욕구가 높으면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자주 웃는다고 한다.<sup>39)</sup> 따라서 새로운 연예 기사를 보는 것도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배움을 즐기는 것이며, 그것을 읽으며 재미있어 한다는 점에서 웃기를 즐기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닮지 않은 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을 벌이는 백부장을 선택했다. 이것은 김태희가 연예 기사를 화제로 삼는 이유가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며, 다른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관련된 소문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장동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처음에는 요가하는 장면을 폄하였다. 정승필이 자기 약혼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라고 급히 수정했다. 이 장면을 폄한 이유는 평소에는 모르다가 상실감을 느낄 때 간절함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랑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인물로 백부장과 최생기를 폄았는데, 백부장은 타인의 불행으로 생긴 기회를 이용하는 인물로,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이 자신과 닮았기 때문이며, 최생기는 힘이 있는 쪽에 붙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부장이 정승필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힘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백부장이 정승필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백부장을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39) William Glasser, op.cit, p.124.

최생기를 힘과 관련시켜 언급한 장동건 역시 힘(power)에 대한 욕구가 높은 인물이다. 힘(power)에 대한 욕구는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자신감에 대한 욕구이다.<sup>40)</sup> 또한 사고를 치고 도망간다는 점에서 오정구 기자 역시 자신과 닮았다고 했다. 오정구 기자가 아프카니스탄으로 발령난 것은 대박기사를 터뜨리려는 욕심에서 정승필 실종사건을 오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동건이 오정구 기자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은 힘에 대한 높은 욕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소문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뿐인데 전교에 그 아이를 ‘조망간 박살낸다.’는 것으로 왜곡되게 소문이 나서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친구에게 한 말이나 그 결과로 보았을 때, 장동건은 무의식 속에 친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 역시 힘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닮지 않은 인물로 편의점 점원을 꼽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점수상으로는 5점이라고 했지만, 연예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이 헛소문을 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 안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군대갔다.’거나 ‘잠수탄다.’고 말을 막 뺏는다고 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신의 증언과 달리 거짓말을 잘 하는 편인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이 사용한 ‘말을 막 뺏는다.’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각하지 못 하는 것이다. 장동건이 말을 막 뺏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과시에서 비

40) 이현림·김영숙, 『현실치료적 집단상담의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6. 138면.

롯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장동건은 ‘이병헌’이라는 가명이 상징하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삼봉은 전과자라는 과거가 흠이 되기 때문에 ‘이병헌’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보았다. 큰 물의를 일으킨 소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으로 ‘태진아 아들 이루가 전 여자친구와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이 밝혀짐’이라고 함으로써, 최희진의 거짓 진술보다는 이루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사회에서 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양사회에서 악평은 그 개인에게 굉장한 오점을 남긴다.’고 해 세간의 평판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사례로 고등학생 시절,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나기로 했던 선생님이 떠드는 학생의 귀를 당겼을 뿐인데 귀가 찢어졌다고 소문이 나서 발령이 한 학기 늦어졌던 일을 진술했다. 평판은 자신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힘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요가장면을 꼽았다가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장동건이 평판을 중시하는 것은 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개개인의 기본 욕구와 관련이 깊었다. 세간에서 흔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때, 영화 텍스트의 한 부분을 회상하는 것을 이른다. 바로 텍스트가 매체의 저장고에서 이전하여 내담자의 지각 자체에 보존되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sup>41)</sup> 아담 브레트너가 사이코드라마에서 영화를 활용한 창조적 예술치료(creative arts therapy)가 내담자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41) 서정임,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6. 8. 8면.

보다 더 깊고 미묘한 감정의 차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듯이,<sup>42)</sup> 영화치료에서도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상징체계가 내담자를 통합하는 자연스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데 기여했다.

#### IV. 진단 및 평가

사생활 보호를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난 후 사후검사를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명	전 후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로 삼는 정도
전지현	사전	점수: 7 이유: 아직 보수적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본인은 잊기 힘들기 때문	점수: 2 이유: 나도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고 그 후로 직접 보거나 겪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	점수: 2 이유: 그냥 가십거리도 본인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
	사후	점수: 3 이유: 전보다 감소. 매체를 잘 안 봐서 접하는 내용이 감소	점수: 1 이유: 원래 잘 안 믿음	점수: 1 이유: 잘 안 믿으니까 말 안 함
김태희	사전	점수: 7 이유: 연예기사만 봐도 대부분 루머니까	점수: 4 이유: 근거없는 소문이 낫다고 믿진 않음	점수: 6 이유: 대부분 흥미있는 내용이 큰 소문으로 나뉨
	사후	점수: 7 이유: 연예인 말고도 실생활에서도 피해를 보는 것 같음	점수: 5 이유: 거짓말인 것 알면서도 그 소문이 머리에 남아 있음	점수: 5 이유: 할 말이 없을 때, 재미있는 말들이 많아서 대화하면서 하게 됨

42) Adam Blatner, Acting-In : Practical Applications of Psychodramatic methods, Third Edition, New York: Springer, 1996.(최윤미 역, 『사이코드라마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214면.)

장동건	사 전	점수: 9 이유: 소문에 민감한 동양 사회에서 악평은 그 개인에게 굉장한 오점을 남김	점수: 7 이유: 몇몇이 근거없이 소문을 뿌리면, 누군가 당사자라고 나서거나 본인이 해명이 없다면 그대로 믿음	점수: 5 이유: 그러려니 넘기는데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넘김
	사 후	점수: 9 이유: 소문이란 게 진실로 믿게 돼 있음	점수: 6 이유: 남 일이니까 쉽게 말함	점수: 8 이유: 자기 일이 아니라 남 일이니까 쉽게 화제로 삼음

영화치료를 실시하기 전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피해의 정도와 소문을 믿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근사하나마 감소하였으나, 화제로 삼는 정도는 근사하게나마 증가했다. 개인별로 보면, 전지현은 소문으로 피해보는 정도를 예전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줄어든 양상을 보였고, 김태희는 소문을 믿는 정도가 예전보다 증가하였으며, 장동건 역시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가 예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만으로 보았을 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배양하려던 영화치료의 목적이 달성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영화치료 전후에 대한 인물별 의견이다.

성명	영화치료 전후 비교
전지현	전에는 다른 사람이 소문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 됨
김태희	조금 더 신경 써서 말하게 됨 크게 변화를 느낀 게 아니지만 말하다가 번뜩 거짓말인걸 알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됨
장동건	그냥 누가 무심코 흘린 말이 남에게는 진실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구나 생각됨

먼저, 전지현은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를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7점에서 3점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매체를 잘 보지 않아서 소문을 접할 기회가 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매체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소문을 그다지 믿지도 않고(1점), 잘 안 믿으니까 화제로 삼는 정도 역시 낮다(1점)는 것이다. 즉 그런 류의 소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영화치료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지현은 실제로 치유효과가 나타난 사람으로, 영화치료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화제로 삼으면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에 소문으로 인해 친구를 잃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김태희의 경우,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가 4점에서 5점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그 소문이 머리에 남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도 실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며 소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높은 자각(7점)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영화치료를 통해 크게 변화를 느낀 것은 아니지만 소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화제로 삼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문을 화제로 삼던 것이 6점에서 5점으로 근사하게나마 감소했던 것이다.

장동건의 경우, 영화치료를 하기 전보다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가 5점에서 8점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므로 쉽게 화제로 삼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각(9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 또한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가 7점에서 6점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치료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그냥 무심코 흘린 말이 남에게는 진실처럼 들릴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사후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언비어[헛소문]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전지현은 어느 정도 치유가 이루어졌으며, 김태희는 남의 말을 할 때 주의하는 태도가 길러졌으며, 장동건 역시 무심코 흘린 말이 타인에게는 진실처럼 들릴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영화치료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영화 감상집단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비교대상은 2011년 S대학교의 강의시간에 <정승필 실종사건>을 감상한 집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영화치료 프로그램과 동일한 사전·사후 질문지를 사용하여 검사했다. 참가자는 모두 21명이었으나 그중 3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후검사를 마치지 못했기에, 사전·사후검사에 모두 참여한 18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검사방법은 사전 검사 후 곧바로 영화 전편을 감상을 하고, 감상이 끝난 후 곧바로 사후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소문으로 피해를 입는 정도에 관한 내용이다.

〈표 19〉 영화감상집단의 피해 정도

\*특수

성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평균
전	9	6	7	7	6	4	5	9	7	9	9	4	7	6	6	7	7	9	6.9
후	8	8	6*	4*	7	8	4*	9	7	9	9	7	7	7	7	5*	7	9	7.2

〈표 20〉 영화치료집단의 피해 정도

\*특수

성명	전지현	김태희	장동건	평균
사전	7	7	9	7.7
사후	3*	7	9	6.3

이상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유언비어로 피해를 입는 정도에 대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승필 실종사건> 감상집단과 영화치료집단간에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감상집단은 <정승필 실종사건> 감상을 통해 소문으로 피해를 입는 정도가 사전검사[6.9]보다 사후검사[7.2]에서 근사[0.3]하게나마 점수가 올라감으로써, 소문이 불려오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근사하게나마 증가했다. 반면 영화치료집단은 소문으로 피해를 입는 정도가 사전검사[7.7]보다 사후검사[6.3]에서 증가함으로써, 소문이 불려오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지현의 응답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영화감상집단에서도 사후 검사에서 소문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감소한 참가자가 4명 있었지만, 조사 대상 집단이 여러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소규모 집단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유언비어[헛소문]을 믿는 정도에 관한 내용이다.

<표 21> 영화감상집단의 믿는 정도

성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평균
전	1	4	7	4	5	0	4	5	3	3	7	4	2	3	8	5	4.5	5	4.1
후	2	4	0	3	2	6	4	6	4	0	7	3	2	3	9	3	3.5	5	3.4

<표 22> 영화치료집단의 믿는 정도

성명	전지현	김태희	장동건	평균
사전	2	4	7	4.3
사후	1	5	6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승필 실종사건>에는 근거없는 유언비어[헛

소문]가 과장되고 왜곡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영화감상집단은 유언비어[헛소문]을 믿는 정도가 사전검사[4.1]보다 사후검사[3.4]에서 감소[0.7]했으며, 영화치료집단 역시 사전검사[4.3]보다 사후검사[4]에서 감소[0.3]했다. 영화감상집단이 영화치료집단보다 근사[0.4]하게나마 더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보았을 때, 영화치료가 성숙한 관객이 영화감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떠도는 소문으로 화제를 삼는 정도에 관한 내용이다.

〈표 23〉 영화감상집단의 화제 빈도

성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평균
전	7	2	2	4	0	0	4	8	4	0	4	2	5	1	8	2	2.5	2	3.2
후	6	2	3	3	2	7	4	6	4	0	5	5	4	1	8	4	2.5	2	3.9

〈표 24〉 영화치료집단의 화제 빈도

성명	전지현	김태희	장동건	평균
사전	2	6	5	4.3
사후	1	5	8	4.7

영화를 보기 전후에 이루어진 떠도는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영화감상집단은 사전검사[3.2]보다 사후 검사[3.9]가 높게 [0.7]게 나타났으며, 영화치료집단 역시 사전검사[4.3]보다 사후 검사[4.7]가 높게[0.4] 나타났다. 영화감상집단의 경우, 영화감상이 끝난 직후에 사후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끼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에 대해 증가한다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승필 실종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으나, <정승필 실종사건>을 감상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영화 치료집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영화치료가 인지적 자각을 가지고 하는 영화감상에 비해 치유적인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본 영화치료가 단회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에는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경험의 기회가 지나치게 부족했던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단회기가 아니라 여러 회기에 걸쳐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영화치료 참가자들이 인지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과 시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alom이 제시한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비추어 볼 때, 그 효과가 증명된다. Yalom에 의하면, 집단상담은 내가 가진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남들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유사한 경험이나 걱정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나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과 자신이 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집단치료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끈끈한 응집력과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강력한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분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감정이 정화(catharsis)가 일어난다고 한다.<sup>43)</sup> 바로 집단상담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치유적인 요인으

43) 최윤미, 『소통과 사이코드라마』, 『2011 인문치료학술대회 인문치료와 소통』,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 인문치료사업단, 2011.5.19. 58-60면.

로 인하여, 전지현이 과거에 유언비어[헛소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봤을 때, 영화치료는 영화감상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집단간의 감정공유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치유적인 요인을 가미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언비에 휩싸인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모두 평소대로 생활하며 침묵을 유지한다고 했다. 전지현은 과거에 친구문제로 소문에 휩싸였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사에서 침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침묵하는 대처방법은 <정승필 실종사건>에서 유미선이 보여주었던 것으로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폴 찬스에 의하면 모델의 특성은 모방하려는 경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up>44)</sup> 유미선은 극중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강화를 받는 인물이므로 참가자들로부터 모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을 대상으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자각시키기 위한 영화치료'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본 영화치료의 텍스트인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은 우연히 화장실에 갇히게 된 정승필을 둘러싸고 온갖 유언비어[소문]이 난무하는 과정을 통해, 김탁호 형사·오종구 기자·백부장과 김생기·편의점 종업원 등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과정에 자신의 욕망을 담아 진실을 과장·왜곡시

44) Paul Chance, Learning & Behavior, Fifth Edition, Thomson Learning, 2004. (김문수·박소현, 『학습과 행동』, 시그마프레스, 2006. 320면.)

키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화치료 참가자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자각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좀더 신경써서 말하게 되었고, 무심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다가도 자제하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정승필은 공금횡령이나 마약 밀반입,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 등과 같은 유언비어[소문]에 휩싸이게 되자, 그것이 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라 하더라도 김탁호 형사와 오종구 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일단 받아들인 신념에 대해서는 그것과 상반되는 증거가 제시되어도 좀처럼 신념을 수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명료화시키는 자료로 오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영화치료 참가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가자 중 일부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문이 머리에 남아서 믿게 되고,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경향 때문에 믿게 된다고 한다. 즉 소문의 심각성에 대한 피해가 주는 파급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영화치료의 참가자 중, 과거에 자신이 정승필과 같이 유언비어[소문]에 휩싸여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특정인을 둘러싼 유언비어[소문]을 그대로 믿는다거나 그러한 소문을 화제로 삼은 정도가 다른 참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유언비어[소문]에 휩싸여 상처를 받은 경험이 없거나 그러한 경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화제로 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언비어[소문]에 휩싸인 사람들이 받게 될 상처를 헤아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화제로 삼는 일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얻었는데,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언비어[소문]에 휩싸인 사람들의 심정을 간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화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에

참가자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영화를 감상하면서도 각자 다른 시간과 느낌으로, 각자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는 글라제가 분류한 욕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화의 등장인물을 통해 투사되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화치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섯째, 프로그램이 끝나고 4개월 후에 이루어진 사후검사를 통해 과거에 유언비에[소문]에 휩싸여 입은 상처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소문을 화제로 삼는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며 회피를 하던 참가자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치유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을 때, 좀더 주의하는 태도가 길러졌음을 확인했다.

여섯째, 영화감상집단과 영화치료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유언비에[헛소문]으로 인한 피해정도, 유언비에[헛소문]을 믿는 정도, 떠도는 소문을 화제로 삼는 정도 등에서 영화감상보다 영화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화치료는 집단간의 감정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강석범 감독,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화이트리 시네마, 2009.
- 곽경택 감독, 영화 <친구>, 시네라인㈜인네트, 2001.
- 브래드 버드, <라따뚜이(Ratatouille)>, 픽사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디즈니픽처스, 2007.
- 『노컷뉴스』, 2010.11.1.
- 『뉴스엔』, 2011.5.14.
- 『동아일보』, 2010.12.22. <http://news.donga.com/3/all/20101222/33434785/1>
- 『한국일보』, 2010.12.20.

### 2. 단행본

- Adam Blatner, Acting-In : Practical Applications of Psychodramatic methods, Third Edition, New York: Springer, 1996.(최윤미 역, 『사이코드라마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심영섭 · 김준형 · 김은하 역,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06.)
- Calvin S. Hall, Vernon J. Nordby,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arrangement with Dutton, 1973.(김형섭, 『융 심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2006.)
- William Glasser,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Harper Collins, 1988.(김인자 · 우애령 역, 『선택이론, 행복의 심리학』, 한국심리상담 연구소, 2006.)
- Grundwerk C. G. jung, *Grundfragen zur Praxis*, Walter-Verlag, 1984.(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Grundwerk C. G. jung 융 기본저작집1, 서울: 솔, 2007.)
- Paul Chance, *Learning & Behavior*, Fifth Edition, Thomson Learning, 2004. (김문수 · 박소현, 『학습과 행동』, 시그마프레스, 2006.)
- Zarka T. Moreno, Leif Dag Blomkvist & Thomas Rützel, Psychodrama, surplus

- Reality and Art of Healing, Routledge, 2000. (황헌영·김세준 공역, 『사이코드라마와 언어현실-드라마치료의 기원과 실제』, 학지사, 2005.)
- 강원대학교 HK인문치료사업단, 『인문치료』, 네오뮤즈, 2008.
- 김수동·이우경,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학지사, 2004.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도서출판 이유, 2006.
-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7.

### 3. 논문

- 김기봉, 『인문치료의 역사-‘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역사의 무거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치료학의 현재와 미래: 이론, 방법, 실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인문치료사업단 2010인문치료국내학술대회 자료집, 45-55면.
- 서정임,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6. 8.
- 양재혁·박제일, 『기본욕구검사(Basic Need Test: BNT)척도개발 예비연구』, 『인문학논총』, 14권 2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6. 243-258면.
- 유인철, 『영화치료와 집단 상담을 통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불안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유일상,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취재원 보호, 알권리 그리고 보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2003.10, 1-20면.
- 이승선·김연식,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10, 65-94면.
- 이현림·김영숙, 『현실치료적 집단상담의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6, 135-152면.
- 최윤미, 『소통과 사이코드라마』, 『2011 인문치료학술대회 인문치료와 소통』,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 인문치료사업단, 2011.5.19. 53-67면.

**Abstract**

## Cinema therapy for Awakening a Protection of Private life

- Focused on A Missing of Jung Sung-Pil by Gang Suk-Bum -

Yoon, Il-Soo

This study is about the result of Cinema therapy for awakening a protection of Hone's private life by making a film, A Missing of Jung Sung-Pil, as a research material. This Cinema therapy was carried out into two ways. One was for the film itself, the other was for participants' personal experiences. A Missing of Jung Sung-Pil pictured a simple incident situation comically. An incident occasion that the protagonist Jung Sung-Pil was locked up in a rest room was growing into an insurance fraud, a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 a murder by passion. Therefore, this film was suitable for the alertness to the possibility of danger that the blurt may affect others badly and make others suffer. It also may cause a breach of privacy. Then, participants' oppressed feelings were healed by speaking 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which are familiar with the incidents in this film. They were also able to get out of their own closed and troubled feelings by having an opportunity of watching some incidents objectively. As a method of research, a psycholog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which connected participants' sensitive responses to a certain part of this film with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also, by relating the results of the psychological analysis to the desire of them was proven out that the desire resulted in the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post test, it was sure that this Cinema therapy healed a wound of the participants by a groundless rumor to a great extent, and that helped for the other participants to nourish an attitude of alertness to the speech of others so that they respect other's privacy. In short, this Cinema therapy accomplished the intended goal of awakening a protection of private life.

Key-words : A Missing of Jung Sung-Pil, Protection of Privacy, Groundless rumor, Sense of respect, Desire, Cinema therapy, humanities therapy.

윤일수

소속: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주소: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사업단

전화번호: 053) 792-9525 (휴대전화) 010-6866-9525

전자우편: yoon9525@chol.com

이 논문은 2011년 5월 16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

[부록]

<사전설문지>

질 문		응 답
전지현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어[소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	① 타인: '명품녀'에 관한 소문 ② 자신: 친구 욕한다는 소문
	유언비어[소문]에 휘말린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	① 타인: 개인, 공인이 아닌 인물이 여러 사람 입에 오르 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임 ② 자신: 굉장히 힘들기도 하였고 불쾌하기도 했음
	소문이 부풀려지는 이유	여러 사람들이 진위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 하기 때문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점수: 7 이유: 아직 보수적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본인은 잊기 힘들기 때문
김태희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어[소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	① 타인: 연예기사(임신, 낙태) ② 자신: 감정이 없는 아이
	유언비어[소문]에 휘말린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	① 타인: · ② 자신: ·
	소문이 부풀려지는 이유	입을 타고 타서 와전되니까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점수: 7 이유: 연예기사만 봐도 대부분 루머니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	점수: 4 이유: 근거없는 소문이 났다고 믿진 않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로 삼는 정도	점수: 6 이유: 대부분 흥미있는 내용이 큰 소문으로 나뉨
장동건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어[소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	① 타인: 태진아 아들 이투가 전 여자친구와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이 밝혀짐 ② 자신: 고등학교 때, 마음에 안든다는 말이 왜곡되어 소문남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점수: 9 이유: 소문에 민감한 동양사회에서 악평은 그 개인에게 굉장한 오점을 남김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	점수: 7 이유: 몇몇이 근거없이 소문을 뿌리면, 누군가 당사자라고 나서거나 본인이 해명이 없다면 그대로 믿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로 삼는 정도	점수: 5 이유: 그러려니 넘기는데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넘김

<영화치료 질문지>

질 문		응 답
전 지 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장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 하고 난 뒤 의기양양해하는 모습 이유: 거짓으로 진술하고도 당당해지는 것이 신경 쓰임
	등장인물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인물과 그 이유	인물: 미선 이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음
	정승필이 화장실에 갇힌 후, 혼잣말을 하는 이유	외로워서 혹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느낌	① 편의점 점원: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신경 쓰임 ② 백부장: 정승필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태도가 무서움 ③ 오정구 기자: 자신의 이익만을 보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쓰임 ④ 김택호 형사: 오정구 기자와 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 ⑤ 박형사: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낌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이 상징하는 의미	① 이벤트: 여자친구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일 ② 할인권: 공짜라면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풍토 ③ 가명[이병헌]: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현대인의 모습 ④ 향수: 그 사람만의 향기라고 생각하는 이기심 ⑤ 커플사진: 커플사진이 그대로 신문전면에 나오는 것은 민간 인입에도 불구하고 가십거리가 되어 떠벌러지는 것 같음
영화를 본 느낌	사소한 사건인데 누군가의 거짓된 진술과 이기심 때문에 정말 큰 사건이 되어 버린 것 요즘 현대사회에서 루머라거나 거짓된 이야기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김	
김 태 희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정승필이 구출돼서 유미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
	등장인물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인물과 그 이유	인물: 정승필 이유: 사랑한다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 하는 게 나와 닮음
	정승필이 화장실에 갇힌 후, 혼잣말을 하는 이유	혼자라는 걸 느끼지 않기 위해 저승사자나 귀신같은 게 주변에 있다고 믿어서
영화를 본 느낌	소문이란 게 근거없는 데서 퍼져나가고, 자기를 위해 하는 거짓 말일수록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 같음.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도 저렇게 허무한 소문들이 많은 것 같음.	

장 동 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장면: 정승필이 자기 약혼녀에게 사랑한다고 느낄 때 이유: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상실감을 느낄 때 더욱더 간절해짐
	등장인물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인물과 그 이유	인물: 백부장 이유: 나라도 비슷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됨
	정승필이 화장실에 갇힌 후, 혼잣말을 하는 이유	외로워서 계속 혼잣말을 함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느낌	① 편의점 점원: 영화에 빠져 있으며 또한 자기 세계에 빠져 삼 ② 백부장: 이직적이고 동료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인간 ③ 오정구 기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 ④ 김택호 형사: 오정구 기자와 별반 다를 게 없음 ⑤ 박 형사: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범인에 대해 엉뚱한 추론을 함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이 상징하는 의미	① 이벤트: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고백 ② 할인권: 돈없는 소시민 ③ 가명[이병헌]: 자신의 과거가 현실을 사는 데 흠이 됨, 이름에 콤플렉스를 느낌 ④ 향수: 그리워하는 소재 ⑤ 커플사진: 둘 사이의 관계를 드러냄
	영화를 본 느낌	아무 건물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함 만약 이범수가 죽는 결말로 영화가 끝난다면, 이범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임. 그럼 남자는 남자대로 천추의 한이 되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아쉬움을 평생 간직하고 살게 됨. 극한 상황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일상 속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해준 영화임

<사후질문지>

질 문		응 답
전 지 현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점수: 3 이유: 전보다 감소. 매체를 잘 안 봐서 접하는 내용이 감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	점수: 1 이유: 원래 잘 안 믿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로 삼는 정도	점수: 1 이유: 잘 안 믿으니까 말 안 함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어[소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	김성민 마약복용 사건
김태희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점수: 7 이유: 연예인 말고도 실생활에서도 피해를 보는 것 같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	점수: 5 이유: 거짓말인 것 알면서도 그 소문이 머리에 남아있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로 삼는 정도	점수: 5 이유: 할말이 없을 때, 재미있는 말들이 많아서 대화하면서 하게 됨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어[소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장윤정과 노홍철이 헤어질 때, 장윤정을 둘러싼 루머(임신설) 타블로 학력위조 사건
장동건	우리 사회에서 유언비어[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	점수: 9 이유: 소문이란 게 진실로 믿게 돼 있음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을 믿는 정도	점수: 6 이유: 남 일이니까 쉽게 말함
	당신이 그런 류의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화제로 삼는 정도	점수: 8 이유: 자기 일이 아니라 남 일이니까 쉽게 화제로 삼음
	큰 물의를 일으킨 유언비어[소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	타블로 학력위조 사건